



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중국음식점에서 해태 타이거즈 시절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모임을 갖고 이 지역 야구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다짐하며 건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시리즈 9회 우승 추억 안고...

끝든 글러브 46개 전·현 감독 6명 배출

'해태 OB 모임' 어제 광주서 한자리에

원조 홈런왕에서부터 공포의 핵잡수함까지 한국 시리즈 9회 우승의 주역들이 아련한 추억을 안고 한 자리에 모였다. 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위치한 김성한 WBC 수석코치의 중국집은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지난 1월 창립 이후 세 번째 해태 OB 모임이 열리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타이거즈맨'들이 눈보라를 뚫고 자리를 한 것이다.

지도자에서 해설자로 또 사장님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김성한 수석코치는 손님 맞을 체비로 분주한 가운데, 가장 먼저 반가운 모습을 드러낸 이는 김광호 삼성 코치였다. 김 코치는 오늘 모임을 위해 대구에서 먼 길을 왔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옛 동료의 얼굴이 반갑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0.311의 평균 타율로 54개의 홈런을 합작했던 '황금 트리오' 김성한·김봉연·김준환도 일제감치 자리를 잡았다.

독특한 투구폼으로 불펜을 호령하던 송유석(42)이 자신의 별명인 '마당쇠'처럼 충무를 맡아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최원복 전 해태 단장을 비롯해 백인호, 양승호, 이건열, 이광우, 박철우, 장재근, 이강철, 광현희, 김지훈 등이 속속 자리를 찾았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도 옛 스타들의 등장 에 여러동질해 하면서도 이들을 반겼다.

서로의 인부를 묻느라 부산하던 모임은 김준환(53) 회장이 주창한 '건배'소리와 함께 막이 올랐다. 선수 시절의 얘기가 자연히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2001년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까지 이들은 9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7명의 한국시리즈 MVP를 배출했다. 1993년과 1997년 한국 시리즈 MVP '바람의 아들' 이종범(38)은 현역으로 뛰고 있던 가임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가을까지' 김정수(46)를 제외한 김봉연(56)·김준환(53)·김종모(49)·문희수(43)·박철우(44)·장재근(44)·이강철(42) 등 역대 MVP가 얼굴을 비쳤지만, 1985년 타이거즈 첫 신인왕이자 마지막 신인왕으로 남아있는 '재간둥이' 이순철(47)은 자리를 하지 못했다.

이들 타이거즈맨이 소장하고 있는 골

든 글러브는 46개, 배출한 전현직 프로야구 감독만 해서 6명(김준환 서정환 유승안 김성한 이순철 선동열)이나 된다.

김봉연 극동대 교수는 "얼굴들을 볼 생각에 연말이 기다려진다. 오늘 자리에 모인 멤버들이 야구를 했을 때 상상할 수 없이 화려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즐거운 회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배 선수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승패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함께 뚫쳐 위기를 극복하면서 극복해 예전의 영광을 이어나가는 후배들을 기대해본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 짓고 당대 최고의 투수 선동열을 번쩍 들어올렸던 '노지심' 장재근(44)이 김지훈·이강철·광현희 등 후배들과 함께 분위기를 주도한 가운데 회장 김준환 감독의 말도 이어진다.

"날씨가 안 좋아서 더 많은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더 발전 된 모임을 기약하고 싶다. 모임을 계속하면서 유소년 야구나 야구 저변확대를 위한 분위기도 조성하겠다."

갑자기 찾아온 감추워도 뜨거웠던 타이거즈의 향수는 막지 못했다. 그라운드를 누비던 젊은 스타들이 다른 삶은 사는 중년의 모습으로 다시 모였지만 이들이 품고 있는 옛추억과 야구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운재나 데안이나

K-리그 MVP·신인상 등 후보 발표

골키퍼 이운재(수원)와 문테네그로 출신 공격수 데안(서울)이 예상 대로 2008 삼성 하우젠 K-리그 최우수선수상(MVP)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2008 K-리그 대상 개인상 부문(MVP·신인선수상·베스트 11)의 최종 후보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수상자를 가릴 K-리그 기자단 투표는 챔피언결전 2차전 다음날인 8일 실시된다. 영광의 수상자는 9일 오후 2시50분부터 광진구 능동 유니버시아드센터에서 열릴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된다.

다음은 부문별 최종 후보 명단.

▲최우수선수상(MVP)=이운재(수원) 데안(서울) 박동혁(울산) 이근호(대구) 정성훈(부산) ▲신인선수상=이승렬(서울) 유호

준(울산) 신형민(포항) 서상민(경남) 박희도(부산) ▲베스트11 △GK=이운재(수원) 김호준(서울) 김영광(울산) 정성룡(성남) △DF=마로 광희주 송종국(이상 수원) 김치곤 아디(이상 서울) 박동혁 유경렬(이상 울산) 최철순 임유환(이상 전북) 조병국(성남) 박원재 최호진(이상 포항) 임중용(인천) 박재홍(경남) 조용형(제주) 김창수(부산) △MF=조원희 서동현(이상 수원) 이철용 기성용 김치우(이상 서울) 오장은(울산) 최태욱 김형범(이상 전북) 김상식 김정우(이상 성남) 신형민(포항) 송정현(전남) 전재운(제주) 하대성(대구) 이상운(대전) 한태유(광주) △FW=에두(수원) 데안(서울) 두두모따(이상 성남) 라돈치치(인천) 예닝요 이근호(이상 대구) 정성훈(부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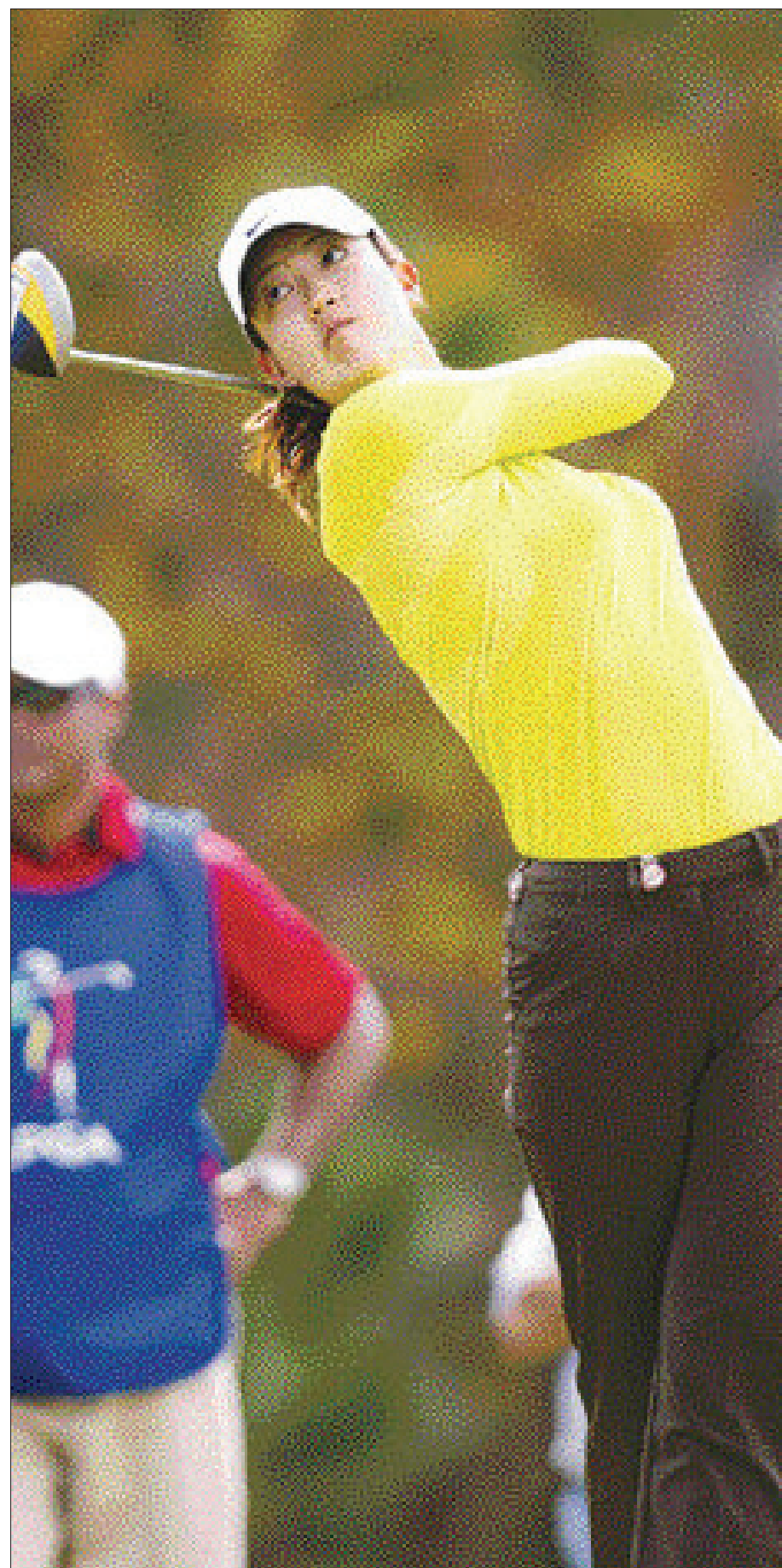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 김형철 동갑내기 신부와 결혼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형철(28)이 7일 8년 열애의 결실을 맺는다.<사진> 김형철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식당에서 동갑내기 신부 박하나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성균관대 재학시절인 200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 온 두 사람은 이번 겨울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셀 위, 천재 샷 부활

LPGA 켈리파잉스쿨 2R 7언더 공동 선두



위성미가 5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LPGA 켈리파잉 스쿨 2라운드 5번 홀에서 힘차게 티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천만달라의 소녀' 위성미(19·미국명 미셀 위)가 '천재'의 면모를 되찾았다.

위성미는 5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인터내셔널골프장 챔피언스코스(파72)에서 치른 켈리파잉스쿨 2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몰아쳤다.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가 된 위성미는 레전드코스(파72)에서 2타를 줄인 일본 상금왕 출신 오마야 시호(일본)와 함께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위성미가 공식 대회에서 2라운드 선두로 나선 것은 2006년 예비암마스터스 이후 2년 만이다. 코스가 좁은 레전드코스에서 치른 1라운드에서 드라이버를 네번 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위성미는 페어웨이로 날찍한 챔피언스코스에서는 마음껏 장타를 뽐냈다. 드라이브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난 것은 세번 뿐이었고 그나마 큰 어려움없이 다음 샷을 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면서도 영리한 플레이를 펼쳤다. 파5 홀에서 두번만에 그린에 올릴 수 있는 거리를 남긴 세차례 기회에서도 모두 레이업을 선택하는 자제력을 발휘했다. 5번홀에서는 210야드 밖에 남지 않았지만 쇼트 아이언을 두번 사용해 1m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그린 플레이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1라운드 26개에 이어 2라운드 도 퍼팅은 24개 뿐이었다.

그러나 구슬수를 우려한 탓인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언론과 인터뷰는 사양했다.

가대주 양희영(19·삼성전자)은 레전드코스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4위(6언더파 138타)를 달렸다. 1라운드에서 78타로 부진했던 안선주(21·하이마트)는 챔피언스코스에서 4언더파 68타를 때려 공동 66위(2오버파 146타)로 올라서며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소렌스탐 설계한 골프 코스 생긴다

'영원한 골프여왕'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설계한 골프 코스가 국내에 생긴다.

한화리조트는 최근 소렌스탐에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짓는 끝내비골프장 코스 설계를 맡기로 계약했다고 5일 밝혔다.

흥원기 한화리조트 대표이사 소렌스탐은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합의에 따라 이날 발표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관련 사업가로 변신하는 소렌스탐은 골프 코스 설계가로 나서 첫 작품을 한국에서 선보이게 됐다.

LPGA 2부 상금왕 허스트 "나도 세리 키즈"

내년 신지애와 신인왕 경쟁 가능성

2008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부 투어인 퓨처스 투어에서 상금왕에 올라 박세리(31)의 영향을 받았다.

허스트는 "어릴 때부터 박세리를 존경해왔다. 작년 US오픈 연습 라운드 때는 직접 만나 골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 너무 기뻐했다"라며 "내가 9살 때 학교도 빼먹고 박세리가 나오는 대회장을 찾아 함께 찍은 사진도 있을 정도"라고 자랑했다. "김인경, 박인비, 안젤라 박 등 한국 선수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허스트는 "신지애가 대단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엔 투어에서 만나 챔피언십에서 함께 쳤으면 좋겠다. 신인왕 경쟁에 대해서는 나도 자신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3년 전까지는 여름마다 왔었다는 허스트는 "2009년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꼭 참가하고 싶다. 투어 대회인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도 나갈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알아듣는 데는

자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에 익숙한 허스트는 그 나이 때 선수들이 대개 그렇듯 허스트는 "어릴 때부터 박세리를 존경해왔다. 작년 US오픈 연습 라운드 때는 직접 만나 골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 너무 기뻐했다"라며 "내가 9살 때 학교도 빼먹고 박세리가 나오는 대회장을 찾아 함께 찍은 사진도 있을 정도"라고 자랑했다. "김인경, 박인비, 안젤라 박 등 한국 선수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허스트는 "신지애가 대단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엔 투어에서 만나 챔피언십에서 함께 쳤으면 좋겠다. 신인왕 경쟁에 대해서는 나도 자신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3년 전까지는 여름마다 왔었다는 허스트는 "2009년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꼭 참가하고 싶다. 투어 대회인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도 나갈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알아듣는 데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부 투어인 퓨처스 투어에서 2008년 상금왕을 차지한 비키 허스트(왼쪽)가 박세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토)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13:00·MBC ESPN)
▲광주·전남 아마추어 고교클럽 축구대회 결승전(MBC·13:10)
▲2008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14:00·KBS1)

00·KBS1)
▲08/09 V리그<한국전력: 대한항공>(14:40·KBS N 스포츠), <현대건설: GS칼텍스>(16:40·KBS N 스포츠)
▲08/09 프로농구(KT&G: 삼성)(14:45·XPORTS), (SK: KTF)(14:50·SBS 스포츠), <동부: 오리온스>(15:00·MBC ESPN)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풀럼: 맨체스터시티>(21:30·MBC ESPN)

7일(일)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블랙번: 리버풀>(00:00·MBC ESPN), <맨체스터Utd: 선더랜드>(02:30·MBC ESPN)
▲2008 PGA Q-스쿨 4R(06:00·SBS골프)
▲08/09 NBA<골든스테이트: 샌안토니오>(10:30·SBS스포츠)